

주제 2

**스포츠 스타에 대한
한·일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
-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김지영(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스포츠 스타에 대한 한·일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

-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다큐멘터리를 중심으로

김지영(건국대학교 박사과정 수료)

국문초록

본 연구는 최근 주목을 모으고 있는 피겨스케이팅의 스포츠 스타인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에 관한 한·일 양국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구조와 의미화 방식을 분석한 뒤 그 결과가 뜻하고 시사 하는 바를 파악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한국의 KBS 스페셜 「종달새의 비상」,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와 일본의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氣持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와 후지 TV 「世界女王密着365日(세계여왕밀착 365일)」을 서사분석 및 신화분석을 해 보았다.

분석 결과, 한국과 일본의 다큐멘터리 모두 주인공이 스포츠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모습을 감동의 요소로 설정한 서사구조를 통해 주인공을 영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성을 가진다. 차이점으로는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비교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빙상환경 비교라는 라이벌 구도에 따른 비교방식을 통해서 김연아의 우수성을 증명하려고 하였다. 반면 일본의 다큐멘터리에서는 라이벌 구도는 두드러지지 않았고 주로 아사다 마오 자체에 더 주목하면서 그녀의 우수성이 서술되고 있었으며, 아사다 마오가 조력자와의 협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을 이끌어내고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특징이 있었다. 즉 스포츠스타의 성공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미디어가 주목하는 부분이 다른데, 한국의 경우 ‘개인적 능력의 성과로서 영웅의 우승’이라는 면을 주목한다면 일본의 경우 ‘집단 속의 협력과 조화가 최상으로 이루어졌을 때의 결과물이 영웅의 우승’이라는 점에 주목하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본 논문은 2010년 3월 인문콘텐츠학회의 인문콘텐츠 제 17호에 실린 것을 재구성한 것입니다.

Key word : 스포츠다큐멘터리, 김연아, 서사분석, 신화분석, 이데올로기

1. 문제제기

지난 2009년 한 해 동안 TV 광고에 가장 많이 등장한 스타는 15개의 광고에 출연한 피겨스케이팅의 김연아 선수였다¹⁾. 이는 한국 최초의 피겨스케이팅 그랑프리 우승자·세계신기록 달성이라는 쾌거를 이룬 김연아에 대한 대중의 인기를 짐작하게 한다. 더욱이 김연아가 올해 2010년 밴쿠버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최초로 피겨스케이팅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그녀에 대한 취재 열기는 더욱 뜨거워졌다. 이렇듯 김연아가 놀라운 성과를 이뤄낼 수록 매스미디어에서 더 많은 방송을 내보내고 그 결과 사람들의 관심이 더 커지는 인기의 확대 재생산 과정에서 주목할 부분은 ‘대중이 인식하는 김연아’는 재구성된다는 점이다. 즉 우리가 인식하는 스포츠 스타 김연아는 매스미디어에 의해 존재하는 정보²⁾일 뿐 김연아의 실재가 아니다. 매스미디어가 가공하고 다듬는 ‘전략적 미디어 영웅³⁾’인 스포츠 영웅은 바르트의 신화이론에서 말하는 내포를 통해 만들어진 의미를 가진 존재다. 이러한 관점에서 ‘매스미디어를 통해 재구성되는 김연아’에는 박세리, 박지성, 박찬호 등과 같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실력을 갖춘 스포츠 선수에 대한 신화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다.

매스미디어 중에서도 특히 텔레비전에서 전달되는 이야기 속에는 항상 서사가 존재하고 있다⁴⁾. 전통적으로 이야기 즉 내러티브는 해당 문화 고유의 가치관, 이데올로기 등이 녹아 있어서 특정 문화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역할을 해 왔다. 특히 텔레비전 텍스트는 한 사회가 가진 정치·문화적 특성이나 이념적인 성향을 재단할 수 있는 총체적 텍스트로 주목받고 있는데⁵⁾, 이러한 텔레비전 텍스트 연구에서 서사이론은 매우 중요한 분석틀을 제공하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인 텔레비전 서사물의 경우 시청자들이 허구를 전제로 이야기를 수용하는 것과 다르게 다큐멘터리나

1) 『헤럴드경제』, 2009년 5월 21일,

2) 橋本純一, 「メディア・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Ⅱ—記号論的研究視角とその適用—」,筑波大學, 『体育科學系紀要』9, 1986, pp.43~52

3) 윤여광·이인희, 「스포츠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제5권3호, 2005, pp.376

4) Kozloff, S.R., 서사이론과 텔레비전, in R.Allen(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pp.67-108), 김훈순 역,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1992, p.69

5) 심 훈,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CBS의 <60 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49권 6호, 2005, p.287

경기 실황 중계 등의 논픽션은 사실을 바탕으로 두고 있다는 전제로 시청자가 이야기를 수용한다는 차이가 있다⁶⁾. 특히 김연아와 같은 스포츠 선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방송 프로그램의 경우, 선수를 설명하고 증명하는 각종 화면과 자료가 지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사실이자 진실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하지만 일반적인 텔레비전 서사물이 만들어진 이야기이듯이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비롯하여 미디어를 통해서 방송되는 스포츠는 스포츠 현실이 아니라 제작자의 의도에 의해 편집된 스포츠 스토리이다⁷⁾.

스포츠 선수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의 경우 일본에서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라는 장르로 정의하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다큐멘터리의 한 장르로서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분류한 연구가 없다. 가장 근접한 다큐멘터리 장르를 찾는다면 휴먼 다큐멘터리에 해당시킬 수 있다. 그런데 이종수(2002)가 정의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휴먼 다큐멘터리는 기존의 위인 중심의 인물 다큐멘터리나 민속지학적 다큐멘터리와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즉 휴먼 다큐멘터리는 단순한 인간 소재의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우리 사회의 문화적 특수성을 반영하고 '인간 가치'를 높이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 '사회 목적성'을 강조하는 사회다큐멘터리 성격과 함께 '개인화', '사사화' 경향을 가지고 있다⁸⁾. 한편 일본의 아베(阿部)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를 '스포츠 경기에서의 영광을 목표로 하는 개인이나 팀에 초점을 맞추며 픽션이 아닌 논픽션 수법을 이용하여 스포츠에 모든 것을 건 사람들을 묘사하는 텔레비전 방송'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⁹⁾. 이러한 측면에서 김연아를 주인공으로 한 다큐멘터리는 휴먼 다큐멘터리로 분류하기 보다는 스포츠 다큐멘터리로 분류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김연아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와 그 의미하는 바를 분석하여 우리나라의 스포츠 신화와 이 시대의 지배이데올로기가 맺고 있는 구체적인 함의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것은 스포츠 신화가 은폐하고 있는 지배이데올로기를 파악하는데 있다. 단,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즘이 스포츠와 운동선수를 통해 영웅주의, 민족주의, 상업주의, 승리지상주의 등의 이데올로기를 전달한

6) 나미수·전오열, 「TV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 '트랜스젠더'주제 <추적60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제6권4호, 2006, p.90

7) 平川澄子, 「スポーツ、ジェンダー、メディア・イメージ —スポーツCFに描かれるジェンダー—」, 『現代メディアスポーツ論』, 世界思想社, 2002, p.92

8) 이종수, 「한국 휴먼다큐멘터리의 시대성과 사회적성」, 『언론과 사회』10권 2호, 2002, pp.36~40

9) 阿部潔, 『スポーツの魅惑とメディアの誘惑』, 世界思想社, 2008, p.84

다는 기존의 연구 범주에서 벗어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김연아의 라이벌인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주인공으로 하는 다큐멘터리와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다큐멘터리의 연구에서 서로 다른 사회나 국가, 문화 간의 TV 서사 분석은 심훈(2005)의 한미 양국의 시사다큐멘터리 분석이 유일하다. 또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서사물의 비교 연구는 주로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루어졌으며 다큐멘터리 비교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고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신화의 특징과 차이, 나아가 각 국의 제작진의 가치관과 이념적 특성을 이해하는 지표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2. 이론적 고찰

1) TV 다큐멘터리

영화나 드라마가 대부분 픽션을 재구성하여 이야기를 제공하는 것인 반면 다큐멘터리(documentary)란 논픽션을 재구성한 것이다. 다큐멘터리는 그 구성이 논픽션이라는 점에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영상물은 사실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해 다큐멘터리에는 픽션이나 사후촬영¹⁰⁾ 등이 없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다큐멘터리 영상 제작에는 제작자의 의도가 반드시 전제되며¹¹⁾ 바로 그 점이 다큐멘터리 역시 있는 사실을 그대로 나열하는 기록영상이 아니라 편집을 통해 제작자의 의도와 현실에 대한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픽션 서사물¹²⁾임을 드러내는 특징이 있다. 다큐멘터리의 텍스트는 인간의 경험과 사회적 현실을 그 시대 사회 구성원인 제작자가 어떻게 선택하고 배열하느냐라는 서사 방식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 더욱이 TV 영상 그 자체가 음성 즉 아나운서나 해설자의 설명에 따라 그 의미작용이 달라진다¹³⁾는 것은 제작자 측의 가치와 요구가 상당히 반영됨을 반증하고, 이는 다큐멘터리가 사실을 기록적으로 반영하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10) 사후촬영 혹은 별도 촬영이란 제작자 측의 표현의도를 짐작하게 하는 촬영 수법으로서, 시나리오 단계에 구상되었지만 촬영하지 못했던 장면을 예술적 표현 등의 이유로 반드시 필요하다는 판단 하에 작품 속에 삽입하는 것을 말한다. 舛本直文, 「『東京オリンピック』の映像解釈: 「芸術か記録か」論争からみたオリンピック」, 『体育学研究』42, p.158

11) 舛本直文, 위의 글, p.159

12) 나미수·전오열, 같은 글.

13) 橋本純一, 「メディア・スポーツに関する研究Ⅱ—記号論的研究視角とその適用—」, 筑波大学, 『体育科学系紀要』9, 1986, p.49

아베(阿部)는 ‘スポーツの魅惑とメディアの誘惑(스포츠의 매혹과 미디어의 유혹)’을 통해서 스포츠 다큐멘터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경기 실황중계가 ‘예측 불가능한 드라마’로서 시청자의 흥분을 불러일으키는 반면,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스포츠 팀이나 스포츠 선수라는 특정 주인공의 성공이나 패배만이 아니라 무엇을 위해 경기에 임했는가를 통해 주인공의 살아가는 모습과 삶의 방식이 감동의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영광→좌절→노력→재기라는 패턴이 감동의 문법으로 사용되며, 이때의 재기가 패배로 끝날지라도 시청자는 재기라는 결말을 향한 주인공의 과정과 삶의 방식/철학에 감동을 받는다.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승자 뿐 아니라 패자도 감동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 하나의 의도된 드라마로 구성된다는 점이 최후의 승자만이 부각되거나 예측 불가능한 돌발적인 상황으로 뜻밖의 인물이 주인공으로 된다는 하는 경기 실황중계와 구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실재의 스포츠 팀이나 스포츠 선수가 스포츠에 모든 것을 내던지는 삶이라는 논픽션을 소재로 재구성한 감동의 픽션 서사물’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성공 여부는 스포츠 자체의 강인함과 사람들의 이야기가 만들어내는 감동을 절묘한 안배로 재구성하는 데 달려있다¹⁴⁾고 한다.

2) 이데올로기와 신화

이데올로기의 어원은 ‘관념’을 뜻하는 idea와 ‘합리적 담론’을 뜻하는 logos의 결합으로, 관념의 체계, 세계에 대한 일반적인 표상이라는 뜻과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완고한 원리에 기초를 둔 독단적인 믿음을 뜻한다. 마르크스주의 견해에서는 이데올로기는 계급적인 것이며 사회에서의 지배적 이데올로기는 그 사회의 지배 계급의 이데올로기가 된다. 마르크스주의에게 있어 이데올로기는 허위의식이며, 매스미디어는 지배적 이데올로기를 전파한다¹⁵⁾. 한편 알튀세르(Althusser)는 허위의식으로서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거부하고 주체를 생산하고 주체에게 세계에 대한 체험적 관계를 부여하는 무의식적인 것이라고 분석했다. 알튀세르는 이데올로기가 교육, 종교, 가족, 정치, 미디어, 문화산업 등의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를 통해서 유지된다고 보았다. 또한 이데올로기적 국가기구는 자본주의적 착취관계의 재생산 도구들이다¹⁶⁾.

14) 阿部潔, 같은 책 pp.84~91

15) Curran, James, Michael Gurevitch & Janet Woollacott, 『The study of the media : theoretical approache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1992, p.26

알튀세르의 이데올로기 관점에서는 스포츠도 해당체제를 합리화·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수행한다. 예컨대 올림픽과 같은 스포츠를 통한 국가전은 민족-국가 이데올로기를 통해 대중들을 국가 앞에 복종하게 한다. 결국 자본주의 사회의 스포츠는 사회적 연대감을 극대화하며 노동에 따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의미에서 오락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페어플레이’와 ‘인류평화’ 정신을 강조하는 그 이면에 ‘경쟁’과 ‘승부’, ‘국가와 인종의 대립’, ‘상업적 이윤추구’ 등의 계급사회를 반영하는 문화 산물인 것이다¹⁷⁾.

이러한 이데올로기와 신화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신화는 흔히 신(god)에 대한 이야기 또는 신성한 이야기를 말하는 그리스어 mythos에서 비롯되었다. 신화는 그 초자연적이거나 초인간적인 존재나 활동을 가상적으로 규정하고 그것을 해석·서술한 민간전승의 한 형태이며 이를 통해 사회에 내재된 불안을 제거하고 집단의 경향이나 희망을 구체화하는 것이다¹⁸⁾. 이렇듯 신화는 그 사회의 특징적 요소를 설명하고 해석하게 하는데 단순히 과거의 관습이나 인식 등만을 설명하는 것은 아니다. 그 신화는 세월이 흐르면서 이야기가 추가·삭제되면서 어느 정도 고정된 양식으로 오늘날에 전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사회와 문화도 반영한다¹⁹⁾.

레비스트로스는 소쉬르의 언어학에서 착안한 구조주의적 분석방법으로 사회적 집단 무의식으로서의 신화를 규명하려고 했다. 레비스트로스는 소쉬르 전통의 언어학 연구가 언어체의 기층 구조를 찾아내기 위해 발화체를 연구하는 방법을 응용하여 다양한 신화를 이용하여 문화의 심층 구조를 파악하려 했다. 그는 인류 문화는 인간이 자연에 대해 의미부여한 행위로 보았는데, 이 의미부여 행위는 연속적 양상의 존재 현실을 단속적인 약호로 분절하는 범주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지며, 범주화의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 이항대립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하였다. 한 사회는 필연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대립된 모순(이항대립)으로부터 문화적 긴장과 갈등이 만들어지는데, 신화는 이를 잠재우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²⁰⁾.

바르트(Barthes)는 신화의 이데올로기적 작용을 언어의 기호 분석으로 설명하였는데, 소쉬르의 기표/의의가 합쳐져 의미를 내는 방식을 일차적인 의미화 과정이라

16) 원용진,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1996, pp.199~200

17) 김호석(1998), 「스포츠 스타, 현대의 영웅」, 이동연 외,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삼인, pp.228~229

18) 최경순, 「매스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성공신화분석 : MBC-TV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16

19) 위의 글, p.17

20) 위의 글, p.19-20

고 보고 외연(denotation)이라 했다. 일차적 의미화의 과정에서 기표/기의를 연합이 이차적 의미화 과정에서의 기표로 기능하며 이것을 내포(connotation)라고 했다. 외연과 달리 내포는 해석하는 사람의 주관에 더해서 원래의 의미가 변형된다. 바르트는 이 점에 주목하고 내포를 통해 변형된 3차적 의미화 과정을 신화라고 보았다. 신화에는 사회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가치와 태도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의 다른 표현이라고 한 것이다²¹⁾. 이러한 바르트의 신화이론은 전반적인 문화적 텍스트에 적용가능하다. 바르트는 광고를 비롯한 문화적 텍스트에 숨겨진 신화를 분석하였는데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대중문화 전반은 한 사회의 신화 또는 지배 이데올로기를 생산하고, 대중문화를 접하는 사람들은 그 신화 안에서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텔레비전 서사물과 그 속의 주인공을 통해 신화와 상응하는 기능을 찾아 볼 수 있는 것이다.

3) 서사구조분석

서사(narrative)는 역사와 문화, 매체와 장르를 초월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의미 전달형식이자 인간의 기본적인 사고 체계이다. 서사연구가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텔레비전의 탄생 이후이다. 1920년대 프로프(Propp)와 러시아 형식주의 비평가들에 의해 서사이론의 기초가 놓인 이후로 바르트(Barthes), 쥘레(Genette), 토도로프(Todorov) 등의 프랑스 학자들이 서사 연구의 개념과 분석 절차를 발전시켰다²²⁾. 모든 서사물이 공유하는 공통의 구조를 가정한 바르트는 텍스트의 의미가 산출되고 소통되는 체계를 발견하려고 했으며 그 발견은 해석의 주관주의를 극복하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토도로프도 바르트와 같이 모든 서사물의 거시 구조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서사적 공식을 찾고자 했다. 쥘레는 모든 서사물은 언어적 산물이며 동사의 확장이라는 전제 하에 서사체의 국면을 서사적 내용인 스토리, 서사 텍스트를 가리키는 내러티브, 서사 행위를 가리키는 서사적 진술이라는 세 가지로 설정하고 그 세 국면의 상호 관련성을 분석했다²³⁾.

채트먼은 모든 서사물에는 공통의 구조가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고 서사물을 구성하는 필수 인자를 분류해서 구조를 드러내고자 했다. 그는 1978년 자신의 저서 『이야기와 담화(Story and Discourse)』에서 서사는 이야기와 담화라는 두 개의 차원

21) Barthes, R., *Mythologi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동문선, 2002, pp.267-275

22) Kozloff, S.R., 앞의 글, p.68

23) 한용환,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2002, pp.28~41

을 가지는 구조적 총합체라고 보았다. 여기서 스토리, 즉 이야기는 ‘누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뜻하며 담화는 ‘이야기가 어떻게 전달되었는가?’에 해당한다. 이야기 분석은 인물의 유형, 인물들 간의 관계, 이야기 전개 등을 대상으로 이야기의 내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야기 분석에 대해서 코즐로프는 텔레비전 이야기들은 사건의 흐름(통합체적인 축)으로부터 존재물들, 즉 배경과 인물의 등장과 변화(계열체적인 축)로 시청자의 흥미를 옮긴다고 하였다²⁴⁾. 계열체와 통합체 분석은 분석 대상이나 목적에 맞게 레비스트로스의 신화의 심층구조 분석, 프로프의 인물의 기능분석, 토도로프의 시퀀스분석을 통한 사건의 발전단계분석, 바르트의 기능과 지표에 관한 분석, 그 외에 사건의 시간적 분석, 인과관계, 기승전결 구조 등 사건 배열 분석 등을 선택적으로 활용 가능하다²⁵⁾. 담화 분석은 언술표현방식과 영상표현방식을 통해 이야기가 서술되는 방식을 분석하는 것이다. 언술표현방식은 화자의 유형 및 화법에 따라 서술자의 유형, 서술 모드, 서술자의 위계구조와 시점 등이다. 영상표현방식은 영상으로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기술적 측면으로 카메라의 기법과 움직임, 조명, 음향 등을 뜻한다.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텔레비전 서사 분석에서 담화분석을 다루지 않은 채 이야기 분석만 이루어진 연구도 있었지만, 텔레비전이 영상매체라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서술되는 방식인 담화 연구가 같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²⁶⁾.

3. 연구문제와 분석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이론적 고찰을 바탕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제작된 총 4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를 비교·분석한 다음 각각의 프로그램이 의미하는 바가 어떠한 이데올로기를 내포하는지를 통해 한·일 양국의 제작 관점 및 지배적인 이데올로기를 고찰하고 논의해보고자 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의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스포츠 영웅에 대한 한·일 양국의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각각 어떠한 서사

24) Kozloff, S.R., 앞의 글, p.82

25) 나미수·진오열, 앞의 글, pp.92~93

26) 김훈순, 「텔레비전 서사 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겨울호, 2004, pp.180~181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그 동일성과 차이는 무엇인가?

둘째, 바르트의 신화개념에 비추어 볼 때 이들에 대한 의미화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셋째, 스포츠 영웅에 관한 한·일 양국 간의 관점의 차이와 서사구성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2) 연구 대상

김연아 다큐멘터리는 지상파 방송 3사에서 모두 제작되었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SBS의 경우에는 피겨스케이팅 경기의 독점 중계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지속적으로 김연아의 경기를 중계해오고 김연아 특집 다큐멘터리 3개, 김연아 특집 방송 3개를 방영한 바 있다. 그 중에서도 08년 3월 19일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의 경우는 시청자 게시글이나 인터넷 댓글을 통해 다른 방송에 비해 김연아에 대해서 매우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분석을 했다는 호평을 받았기 때문에 연구 대상으로 선정했다.

다음으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KBS의 「종달새의 비상」(07.1.6)은 그랑프리파이널에서 우승하면서 국내에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시기의 김연아를 조명한 다큐멘터리이다. 이 방송에서는 피겨 불모지인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김연아가 우승할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밝히려고 했다. 즉 두 다큐멘터리 모두 방송제작 측의 주관적이거나 인상적인 관점에서라기보다는 나름대로의 근거를 통해서 그녀의 우수함을 조명하려고 했다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한국 다큐멘터리의 비교 대상으로 일본의 아사다 마오와 관련한 다큐멘터리는 NHK의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09.3.13)와 후지TV에서 제작된 「世界女王密着365日(세계여왕밀착 365일)」(09.3.25)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NHK의 다큐멘터리는 약 60분, 후지 TV의 방송은 약 21분으로 분량의 차이는 있다. 하지만 KBS와 SBS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의 비교 대상으로서 공영방송 NHK와 상업방송 후지TV에서 제작된 다큐멘터리는 충분히 그 의의가 있다. 양질의 다큐멘터리 제작으로 익히 알려져 있는 NHK에서 방송된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은 2004년부터 방송된 스포츠 다큐멘터리 전문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연구 대상으로서의 가치가 있다. 그리고 상업방송인 후지 TV는 아사다 마오의 방송스폰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을 만큼 수많은 프로그램

을 제작해왔다는 측면에서 분석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다큐멘터리 분석에서 해당 다큐멘터리와 관련한 외부정보를 반영하는 것은 지양하고 텍스트 내부구조의 분석을 통해 신화를 도출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려고 한다. 해당 다큐멘터리 텍스트의 이야기구조 분석은 TV나 영화텍스트 연구의 접근방법 중 하나인 서사분석으로 분석하고, 이야기가 의미하는 바는 바르트의 신화개념으로 파악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야기구조 분석은 각 다큐멘터리의 통합체 분석으로 토도로프의 시퀀스 분석방법을 사용한 뒤, 계열체 분석으로 등장인물의 유형과 관계를 통해 이항대립²⁷⁾을 찾음으로써 해당 다큐멘터리의 텍스트가 가진 내재적 의미를 찾을 것이다. 다음으로 담화 분석을 위해 언술표현방식과 영상 표현방식을 구분해서 살펴본다. 단 담화 분석에서는 4편의 다큐멘터리 중에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비슷한 시기의 모습이 가장 많이 중첩된 SBS의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08.3.19)와 NHK의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氣持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09.3.7) 2편을 분석할 것이다. KBS의 「종달새의 비상」은 제작 시기가 다르고, 후지TV에서 제작된 「世界女王密着365日(세계여왕밀착 365일)」은 방송분량이 짧은데, 이런 경우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따로 분석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다큐멘터리가 보이는 서술 방법의 특징을 구별하는데 4편의 다큐멘터리를 제각각 분석 비교하는 것은 지나친 나열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에 언급한 SBS와 NHK의 방송만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상의 분석을 통해 분석한 이야기 구조와 담화 속에서 주인공이 어떤 속성을 가지며 주인공의 속성들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를 바르트의 신화분석을 이용하여 파악하려고 한다. 이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다큐멘터리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어떻게 신화화하는지, 그 배경에는 어떤 이데올로기가 내재되어있는지,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제작자의 이념과 그 사회의 보편적 가치는 무엇인지를 엿볼 수 있게 해준다.

27) 레비스트로스의 이항대립 분석은 텍스트 내의 대립적 가치가 사회·문화적으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준다. 나미수·전오열, 앞의 글, p.102.

4. 연구 결과

1) 이야기 분석

(1) KBS 스페셜 「종달새의 비상」

① 시퀀스 분석

이 다큐멘터리는 김연아가 2006년에 시니어 무대에 데뷔하자마자 한국선수로서는 최초로 그랑프리파이널에 진출하게 되면서 그 준비과정부터 대회결과까지를 다루었는데, 5개의 시퀀스를 사용했으며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나타났다. 우선 시퀀스 1은 기(起) 단계로 피겨에 대한 천부적인 소질을 보인 김연아의 시련에 대한 내용이다. 열악한 빙상 환경은 김연아를 부상을 입히며 선수 은퇴까지 고려하게 했으며 엄청난 경제적 부담은 김연아를 뒷바라지하는 가족을 힘들게 했다는 내용으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시퀀스 2와 3은 승(承) 단계에 해당한다. 시퀀스 2는 피겨 스케이트화를 전문으로 하는 기술자가 있으며 유소년 피겨 선수를 체계적으로 육성하는 일본의 상황과 일본의 대표 선수 아사다 마오에 대한 설명을 한다. 시퀀스 3은 라이벌 관계에 있는 김연아·아사다 마오 두 선수가 이번 그랑프리 파이널을 준비하면서 각각 어떤 훈련 환경에 있는지를 보여준다. 기(起)~승(承)단계까지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라는 개인의 비교가 국가적 비교로 이어지면서 국내 빙상 환경의 열악함을 설명한다. 시퀀스 4는 전(轉) 단계로 러시아에서 열린 그랑프리파이널 경기장에서의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모습인데, 우승후보로 기자들에게 주목받고 프리경기에서도 1위를 차지한 아사다 마오와 부상테이프를 감은 채 경기 중에 제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 김연아가 대비되면서 긴장이 극대화된다. 시퀀스 5는 결(結) 단계로 그랑프리파이널 둘째 날에 김연아가 일으킨 극적인 역전승에 대한 이야기이다. 전(轉)~결(結) 단계는 허리 부상 속에서도 완벽한 경기를 펼친 김연아가 우승 후보 아사다 마오를 이김으로써 김연아의 실력이 어떤 제약도 뛰어넘음을 알게 해준다. 이 이야기 구조 속의 김연아는 자신의 천부적 재능(시퀀스 1)을 억누르는 열악한 환경(시퀀스 2~3)을 갈고닦은 실력 하나로 극복(시퀀스 4~5)해내는 초인적 인물의 속성을 지닌다.

② 계열체 분석

「종달새의 비상」에서는 주인공 김연아와 라이벌이자 적대자인 아사다 마오를 중

심으로 조력자나 증언가 등의 등장인물이 배열되면서 뚜렷한 이항대립구도를 가진다. 일본의 아사다 마오는 쟁쟁한 동료 선수·전용링크 등의 인프라, 체계적인 유소년 육성 시스템, 세계적으로 유명한 코치의 조력을 바탕으로 고난이도 점프를 구사한다. 이에 반해 열악한 빙상환경과 그로 인한 고질적 부상, 경제적 부담을 안고 있는 김연아가 대조되면서 '김연아 대 아사다 마오'는 매우 적대적인 대립 가치로 나타난다. 이들의 환경적 측면은 '한국의 빙상환경 대 일본의 빙상환경'이라는 대립항으로 이어지면서 김연아의 시련극복이 더욱 강조된다.

(2)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① 통합체 분석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첫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이후 캐나다 코치진과의 훈련과정에서부터 그랑프리 파이널 2연패를 이룬 대회결과까지를 6개의 시퀀스로 다루고 있으며 기승전결의 형식을 갖췄다. 기(起) 단계인 시퀀스 1에서는 캐나다에서 훈련하는 김연아를 보여주면서 캐나다의 브라이언 오서 코치와 데이빗 윌슨 안무가가 김연아의 재능을 어떤 전략으로 가공하여 세계신기록을 세우게 했는지를 소개한다. 시퀀스 2·3·4는 승(承) 단계로 최근 경기 성적을 통해 희비가 엇갈린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에 대하여 동작과 채점방식 등을 비교하며 구체적으로 분석하였다. 전(轉) 단계인 시퀀스 5는 김연아가 일본에 비해서 열악한 국내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신기록을 세웠음을 설명한다. 결(結) 단계인 시퀀스 6은 열악한 환경 때문에 생긴 고질적인 부상으로 4대륙 대회를 앞두고 결장한 김연아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에서는 김연아의 우수성을 증명하고자 외국의 평단이나 국제적 심사기준, 아사다 마오라는 3가지 세력에 의해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다. 즉 국제(세계), 한국, 일본이라는 3각 구도를 가진다. 국제(세계)는 기준/보편적 가치의 의미를 가지며 한국의 실력을 절대 평가하는 거울이고, 일본은 극복해야할 존재/경쟁자의 의미와 함께 한국의 능력을 상대 평가하는 거울이다. 김연아는 국제 심사 기준을 기준으로 세계신기록을 수립하며 해외 평단의 호평을 받으며 일본의 아사다 마오를 이겼다는 점에서 객관적·절대적으로 우수한 선수이다. 이를 통해 김연아는 환경적 제약을 극복한 인물, 더 나아가 일본의 우수한 피겨환경조차 제압해버리는 인물로 묘사된다.

② 계열체 분석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의 이항대립 분석 결과 ‘김연아 대 아사다 마오’, ‘한국의 빙상환경 대 일본의 빙상환경’이라는 대립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세계 신기록을 수립한 김연아는 부상을 제외하고는 아사다 마오에 뒤지지 않는다는 것이 설명되면서 두 대립 관계는 적대적 이미지가 완화된 라이벌로 묘사된다. 그리고 한국의 빙상환경은 여전히 열악하지만 김연아는 과거와 달리 그 환경을 선택할 수 있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김연아의 절대적 장애물은 아니다. 하지만 김연아의 부상의 원인이고 피겨 꿈나무의 현실인 한국의 인프라는 전용링크와 안전한 훈련시설을 갖춘 일본의 빙상환경과 대조되고 있다.

(3)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① 통합체 분석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2008년 타치와나 타라소와 코치와 만난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 2회 점프에 도전하여 여러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08년 그랑프리파이널 대회 1위를 차지하게 되는 이야기를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서술하고 있다.

총 5개의 시퀀스로 구성되며, 시퀀스 1은 기(起) 단계에 해당한다. 아사다 마오가 트리플 악셀을 한 프로그램에 2번 뛴다는 목표를 타라소와 코치가 반대함으로써 둘 사이에 갈등이 생기는 것에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승(承) 단계인 시퀀스 2는 아사다 마오가 타라소와 코치에게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고 다음 경기인 NHK배에서 타라소와 코치의 응원 속에 트리플 악셀을 2번을 뛴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내용이다. 시퀀스 3·4는 전(轉) 단계이며 점프감각이 되살아난 아사다 마오가 타라소와 코치의 전략 하에 라이벌 김연아와 차별되는 새로운 표현 기술에 도전하여 그랑프리파이널에서 우승하기까지를 다룬다. 결(結) 단계인 시퀀스 5는 심리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성장한 아사다 마오가 올림픽 본선이라는 다음 도전을 향해 나아가는 모습을 그린다.

이 다큐멘터리는 재능은 있지만 기술적 완성도가 떨어지는 선수가 우수한 코치를 만나 서로 협력하여 하나의 성공을 이룬다는 내러티브를 전달한다. 이 내러티브 내부에는 김연아-마오라는 라이벌 간의 경쟁 드라마도 자리하지만 전반적인 큰 틀

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것은 코치와 선수 간의 협력관계이다. 즉 아사다 마오에게 감정이 이입되지 않았던 코치를 아사다 마오가 적극적으로 소통함으로써 자신의 집념을 이해하게 만들었고, 아사다 마오와 교감한 코치가 그녀와 혼연일체가 되어 아사다 마오의 시련 극복에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이 주된 내용이다.

② 계열체 분석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이항대립 분석결과 ‘아사다 마오 대 타라소와 코치’라는 대립적 가치를 찾을 수 있었다. 아사다 마오의 전혀 새로운 도전에 대해서는 타라소와 코치가 반대함으로써 첨예한 갈등관계에 놓인다. 결국 타라소와 코치가 그 도전을 받아들이고 두 사람 사이의 팀웍이 이루어진 이후에는 적극적인 협력관계가 이루어진다. 이 관계에서는 아사다 마오는 ‘순종적인 제자’의 이미지가 부각되었다.

또 다른 대립적 가치로는 ‘아사다 마오 대 김연아’다. 음악의 이미지에 적합한 감성적 표현이 가능한 김연아의 연기가 ‘감성적’이라고 한다면, 트리플 악셀을 고속 카메라로 촬영하여 철저하게 동작의 오차를 줄이려는 아사다 마오의 기술은 ‘이성적’이다. 경기를 변경으로 발생한 15초의 시간을 활용하는데 있어서도 전체적으로 여유 있게 분배한 김연아에 비해서 스텝연기 시간을 15초 늘리는 전략을 사용한 아사다 마오는 훨씬 ‘도전적’으로 묘사된다.

(4) 후지TV 「世界女王密着 365日(세계 여왕 밀착 365일)」

① 통합체 분석

「世界女王密着 365日(세계 여왕 밀착 365일)」은 09년 3월에 열린 세계피겨스케이팅 선수권대회를 앞두고 08년 3월부터 09년 2월까지의 아사다 마오의 훈련과정과 여러 대회들의 성과를 돌이켜보는 내용이며 5개의 시퀀스로 이루어져있다. 전형적인 기승전결 형식이라기보다는 진행자가 아사다 마오를 인터뷰하는 내용이 시퀀스 1·5에 나오고, 시퀀스 2·3·4는 아사다 마오의 인터뷰 답변과 그녀의 상황을 부연 설명하는 장면이 삽입되었다. 시퀀스 1은 진행자가 캐나다에서 아사다 마오를 만나 일상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난 우승에 대한 인터뷰를 한다. 그리고 그 당시의 장면이 내레이션과 함께 제시된다. 시퀀스 2는 당시 그녀의 뒤에는 프로그램을 짜는 코치만이 아닌, 트레이닝 코치와 스케이팅 전문가를 비롯한 수많은 전문가의 노

력이 있었다는 내용이다. 시퀀스 3은 이러한 조력가들과 자신의 노력으로 아사다 마오가 국제무대사상 처음으로 트리플악셀 2회를 성공시키는 기록을 성사시키는 내용이다. 시퀀스 4는 아사다 마오가 다른 기술력도 향상시키면서 자신의 가능성을 점점 높여가고 있으며 노련한 경기 운영과 순발력, 프로그램 해석 능력을 갖췄음을 2009년 2월 4대륙선수권 경기장면을 통해 설명한다. 시퀀스 5는 다시 진행자와 아사다 마오의 인터뷰 장면이다. 아사다 마오는 연기에서나 득점에서나 다음에 선보이는 모습이 자신의 베스트가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하고 올림픽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마친다.

이러한 시퀀스 흐름은 아사다 마오의 강한 집념과 훌륭한 기술이 시스템 속에서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 아사다 마오의 평범한 모습을 통해 그녀의 우승이 혼자만의 고군분투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2가지 주제를 동시에 전달하고 있다.

② 계열체 분석

여기서 드러나는 이항 대립적 가치는 뚜렷하지 않지만 아사다 마오의 2가지 모습을 통해 '선수 아사다 마오 대 인간 아사다 마오'라는 대립적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 하나는 자신의 목표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며 경기 도중 발생하는 실수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집념의 소유자인 선수 아사다 마오다. 다음으로는 빙판 밖에서의 인간 아사다 마오인데, 인터뷰를 통해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기도 하고 정밀한 체력측정에서는 운동선수답지 않은 지극히 평범한 체력을 지니고 있는 보통의 10대 소녀의 모습이다. 즉 자신의 장기인 트리플 악셀이 실패하면서 정신력이 헤이해졌다는 여론의 못매를 맞았던 아사다 마오의 평범한 모습을 통해 일반 대중이 응원하고 감싸줄 이웃집 소녀라는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있다.

(5) 한·일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이야기 구조 비교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이야기 구조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표 1> 이야기 구조 비교

	통합체		계열체	
종달새의 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아의 시련 극복 과정이 주 내용. ● 구체적인 노력 과정이나 전략이 아닌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서 설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환경적 열세를 실력으로 극복하는 김연아가 의미화됨. ● 한국의 열악한 빙상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은 없음. ● 기승전결 구도. ● '개인화', '사사화' 경향. 	조력자로서의 어머니 강조	이항 대립 구조 ① '김연아': '아사다 마오' ② '한국의 빙상환경': '일본의 빙상환경'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아의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이 주 내용. ● 김연아를 세부적으로 분석하면서 일본과의 비교와 해외 언론의 평가를 통해 그녀의 실력을 증명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신을 극복하고자 하는 강한 도전 정신의 소유자로 아사다 마오가 의미화됨. ● 라이벌과의 비교는 두드러지지 않음. ● 코치 등의 조력자와의 협력이 강조됨. 	조력자 / 증언가는 대부분 외국인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사다 마오가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을 목표로 도전한다는 내용. ● 코치와의 갈등-화해-협력의 과정과 구체적인 경기 전략이 서술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사다 마오가 도전을 달성하는 과정을 통해 올림픽에서의 성공도 기대한다는 내용. ● 아사다 마오의 성공을 돕는 여러 분야의 사람들을 인터뷰함으로써 아사다 마오가 강력한 서포터의 지지 속에서 실력을 쌓아가고 있음을 암시함. ● 아사다 마오의 평범함을 강조함. 	이항 대립 구조 ① '아사다 마오': '타라소와 코치' ② '아사다 마오': '김연아'	
世界女王密着 365日 (세계 여왕 밀착 365일)			뚜렷한 이항 대립 구조는 아니지만 '인간 아사다 마오'와 '선수 아사다 마오'로 나눌 수 있음.	

분석한 다큐멘터리의 흥미롭게도 아베(阿部)가 설명한 영광→좌절→노력→재기라는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패턴을 따르고 있다.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 모두 천부적 재능으로 주목받았고(영광) 환경적 제약 또는 기술적 미숙으로 시련에 처했으며(좌절) 그것을 극복하고자 훈련(노력)한 끝에 대회 우승(재기)이라는 결과를 얻는다. 즉 분석한 다큐멘터리 모두 주인공을 초인적인 노력으로 시련을 극복한 영웅으로 의미화 하는 공통점이 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개의 다큐멘터리는 한국 다큐멘터리와 일본 다큐멘터리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종달새의 비상」과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공통적으로 '한국 대 일본', '김연아 대 아사다 마오'의 비교라는 뚜렷한 이항 대립 구조를 통해서 김연아의 우수성과 그녀가 처한 환경적 제약을 드러냈다. 환경적 제약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종달새의 비상」이 단순히 현상을 비교하는데 그쳤다면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기술과 해외 평가, 심사 점수 등을 통해 구체적으로 비교했다는 차이가 있다. 그런데 두 다큐멘터리 모두 한국 빙상 환경의 열악함을 김연아의 성과를 둔

보이게 하는 요소로만 사용했을 뿐 구체적인 개선 방안이나 그 필요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 또한 김연아의 사적인 이야기를 중심으로 서술하면서 그의 개인적 노력과 시련 극복을 다뤘다는 공통점이 있다. 「종달새의 비상」의 등장인물들은 매우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 위주이며 특히 어머니가 강조된다.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에서는 조력자인 코치가 김연아의 사적인 모습에 대해서도 자세히 이야기한다. 즉 두 다큐멘터리 모두 한국 휴먼 다큐멘터리의 특징인 ‘개인화’, ‘사사화’ 경향²⁸⁾을 보였다.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와 「世界女王密着 365日(세계 여왕 밀착 365일)」의 경우는 아사다 마오 위주로 이야기를 전개하면서 라이벌 구도에 큰 비중을 할애하지 않은 반면 아사다 마오의 도전을 돕는 조력자와의 협력관계를 드러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일본의 두 다큐멘터리 모두 뚜렷한 이항 대립 구조를 보이지 않았고 등장인물 측면에서는 한국과 달리 일본 프로그램 모두 아사다 마오의 사적 관계에 있는 인물이 없고 조력자도 선수로서의 아사다 마오에 대해서만 이야기한다.

2) 담화 분석

(1)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의 담화분석

여기에는 주인공 김연아와 코치를 비롯한 주변인물, 해외 기자나 전문가 등의 조연가, 라이벌 아사다 마오가 프로그램의 서사 주체가 된다.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진행자는 없는 대신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 over narration)이 진행자 역할을 한다.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30대가 넘는 것으로 추정되는 여성의 목소리로 저음이며 차분한 진행을 보인다. 언술표현방식은 내용을 설명하거나 시청자를 대신해서 등장인물에게 질문한다. ‘완벽한 모습으로’, ‘사뿐하고 우아하게 착지’, ‘차원이 다른 스케이터’, ‘완벽한 점프의 교과서’ 등의 주관적 평가를 드러내는 멘트를 함에도 이 목소리는 객관화된 사실을 전달하는 ‘신의 소리’ 역할을 하며 시청자는 이 목소리가 들려주는 이야기와 논리에 따라가게 된다. 이러한 직접화법은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바를 확실히 한다는 특징이 있다.

취재자의 경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 채 등장인물들에게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다. 취재자의 목소리는 등장인물과 질문 및 대화할 때 가

28) 이종수, 앞의 글, p.40

끔씩 삽입되며 목소리 유무에 상관없이 취재자의 질문은 모두 자막으로 화면에 드러난다. 이들의 이러한 인터뷰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의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프로그램 전체의 이해를 돕는다.

주인공 김연아와 라이벌로 등장하는 아사다 마오의 언술표현방식은 취재자의 질문에 답하며 아래에 자막이 들어간다. 이들에 대한 영상 표현 방식은 질문에 답할 때는 상반신만 보이는 미디엄 클로즈업, 평각앵글,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이 사용되었다. 경기 장면은 다양한 카메라 샷이 사용되었고 기술을 평가하거나 비교할 때는 정지화면인 freeze, 동작을 저속 처리하는 slow motion이 사용되었다. 그 외 장면에서는 전신이 보이는 롱 샷이나 이동을 쫓는 팔로우 샷이 사용되었다.

전문가로 등장하는 해외 기자, 코치, 해외 전문가, 다른 선수의 언술표현방식은 주로 취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답변은 모두 자막으로도 처리되었으며 이들이 사용하는 전문적인 용어와 자세하며 구체적인 답변은 이들의 전문성, 권위, 신뢰를 강화시킨다. 종종 코치와 안무가가 김연아와 대화하는 모습도 나오는데 코치와 안무가의 발화내용에 대해서 김연아는 웃거나 고개를 끄덕이는 것으로 답변을 한다. 발화 내용을 들리게 할 경우에는 자막처리를 했다. 이들에 대한 영상표현방식은 미디엄 클로즈업, 평각앵글과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이 사용되면서 발언 내용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코치와 안무가가 김연아와 대화할 때는 롱 샷과 미디엄 클로즈업을 사용하였다.

음향사용에 있어서는 선수들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중 모습을 보여주고 그 때 경기에서 사용된 곡이 흘러나온 것 외에는 대부분 음향이 없다. 그런데 유일하게 음향이 나오는 부분이 한 군데 있다. 그것은 기술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장면(17:16~18:21)이다. 아사다 마오의 잘못된 점프 장면(17:16~17:44)에서는 불안감을 고조하는 음향이, 김연아의 정확한 점프 장면(17:44~18:07)에서는 빠른 일렉트로닉 바이올린 선율이 나오는 음향이, 이 두 명의 기술에 대한 점수 평가(18:08~18:21)에서는 조금 느리고 안정된 전자기타 선율의 음향이 나오므로써 두 선수의 기술 비교 장면이 강하게 대비되는 효과를 보였다.

(2)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담화분석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에서는 진행자와 아사다

마오, 타라소와 코치, 카타리나 비트와 같은 전문가, 조연가, 라이벌 김연아, 한국의 시민들이 등장한다.

진행자는 20대 초중반의 젊은 남성으로 취재자 없이 스튜디오에 등장한다. 진행자의 예술표현방식은 시청자를 직접 응시하거나 스튜디오 안을 천천히 걸으면서 낮은 목소리로 발화한다. 진행자는 시퀀스 1의 시작 부분에 등장하여 아사다 마오가 어떤 선수이며 앞으로 어떤 이야기를 전개할 것인지를 미리 설명한다. 그리고 시퀀스 3의 시작 부분에 다시 등장하여 시퀀스 1·2의 내용을 정리하고 자신의 감상과 의견을 말하며 시퀀스 3에서 전개될 이야기를 미리 설명한다. 그리고 시퀀스 5의 시작 부분에 다시 등장하여 시퀀스 3·4에서 아사다 마오의 성공 의의와 앞으로의 기대감을 설명하고 남은 이야기가 무엇인지를 언급한다. 진행자에 대한 영상표현방식은 무릎까지 보이는 미디엄 롱 샷, 상반신만 보이는 미디엄 클로즈업, 전신이 보이는 롱 샷이 사용되고 진행자가 스튜디오를 걸을 때는 팔로우 샷을 사용되었는데 안정적인 속도로 촬영되었다. 또한 전문 성우에 의한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voice over narration)이 또 다른 진행자 역할을 한다.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은 40~60대로 추정되는 남성의 목소리로 저음이며 차분한 진행을 보인다. 예술표현방식은 주로 시청자를 향한 발화로 전체 이야기를 설명한다. 이 목소리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는 영상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실을 전달하는 '신의 소리'의 역할을 한다.

취재자의 경우는 모습은 드러나지 않은 채 등장인물들에게 시청자를 대신해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얻는다. 취재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으며 취재자의 질문은 모두 자막으로 화면에 드러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인터뷰는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의 중간 중간에 삽입되어 프로그램 전체의 이해를 돕는다.

주인공 아사다 마오에 대한 예술표현방식은 취재자의 질문에 응답하는 것으로 단순 답변과 시청자에게 자신의 의지나 생각을 발화하는 두 종류가 있다. 아사다 마오의 발화에 대해 자막은 없다. 아사다 마오에 대한 영상 표현 방식은 질문에 답할 때는 미디엄 클로즈업, 클로즈업, 평각앵글,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 등이 사용되었고 훈련 장면이나 이동 장면, 경기를 준비할 때는 롱 샷과 팔로우 샷이, 종종 아사다 마오의 표정을 담기 위해 빅 클로즈업이 사용되었다. 경기 장면은 다양한 카메라 샷이 사용되었고 기술을 평가하거나 비교할 때는 정지화면인 freeze, 동작을 저속 처리하는 slow motion이 사용되었다.

타라소와 코치와 전문가로 등장하는 올림픽 2관왕 카타리나 비트, 라이벌 김연아

에 대한 언술표현방식은 주로 취재자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이다. 이들의 답변은 모두 성우의 더빙으로 처리되었지만 실제 목소리도 낮게 들린다. 그들의 발화 내용을 완전히 지우지 않은 채 이루어진 정확하고 또박또박한 일본어 더빙은 그들의 발화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영상표현방식으로는 질문에 답할 때에는 미디엄 클로즈업, 평각앵글과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이 사용되었다. 코치가 아사다 마오와 대화하거나 아사다 마오의 훈련 및 경기 모습을 바라볼 때는 롱 샷, 미디엄 클로즈업, 클로즈업이 사용되었으며 멀리서 관찰하는 카메라 시선이기 때문에 두 사람의 대화는 들리지 않는다. 그리고 아사다 마오의 모습을 집중해서 보는 타라소와 코치의 표정을 잡기 위해 빅 클로즈업이 사용되었다. 김연아의 경우는 아사다 마오와 대화하는 모습은 미디엄 롱 샷이 사용되면서 대화가 들리지 않았고, 경기 장면은 다양한 카메라 샷이 사용되었지만 특별히 freeze나 slow motion은 사용되지 않았다.

아사다 마오와 김연아의 경기를 보기 위해 공공장소의 TV를 시청하는 한국 시민들에 대한 언술표현방식은 취재자에 질문에 대답하는 것으로 이들의 경우에는 음성을 그대로 내보내고 자막처리를 하였다. 이 경우는 그들 답변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려는 의도라기보다는 그들의 목소리에 실린 감정(웃음, 미소 등)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해석된다. 이들에 대한 영상표현방식은 평각앵글과 미디엄 클로즈업이 사용되었다.

음향을 살펴보면 한국의 다큐멘터리와 다르게 거의 대부분의 장면에서 음향이 사용된다. 선수들의 피겨스케이팅 경기 장면에서는 당시 사용된 곡을 사용하였으며 그 외에 아사다 마오가 시련에 빠졌을 때에는 위기감이 감도는 음악이, 아사다 마오가 우승한 뒤 성취감을 맛볼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음악이 사용되었다. 진행자가 발화할 때에도 그 내용에 맞는 음악이 사용되었다. 다큐멘터리의 시작과 끝은 일본 해금과 일렉트릭 기타가 주선율로 나오는 오케스트라 음악이 사용되어 아사다 마오의 도전의 무게감을 더해준다.

(3) 한·일 다큐멘터리의 담화 비교

이상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와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담화를 분석하였으며 <표 2>는 두 프로그램의 분석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표 2>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와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담화 분석 비교

	공통점	차이점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 (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언술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재자는 모습이 드러나지 않은 채 등장인물에게 질문을 하고 답을 얻음. • 취재자의 질문은 자막 처리됨. •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 있음. • 모든 등장인물은 취재자와 인터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 없음. • 취재자의 목소리가 들릴 때도 있음. • 모든 인터뷰 답변은 자막 처리. • 코치와 안무가는 김연아와 대화하는 장면에서 자막 처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가 스튜디오에 등장. • 진행자는 시청자를 응시하며 발화. • 아사다 마오는 취재자가 던진 화두에 대해 시청자를 응시하며 발화. • 한국 시민을 제외하고 모든 인터뷰는 자막 없음. • 외국인(코치, 전문가, 김연아)은 성우의 더빙 뒤에 자신의 목소리가 중첩됨. • 코치와 아사다 마오의 대화, 코치와 김연아의 대화는 모두 소리가 없음.
영상 표현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장인물 인터뷰 시 미디엄 클로즈업, 수평앵글,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 • 주인공과 등장인물 간의 대화하는 장면은 관찰자적 시각에서 촬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경기 동작에 대해서 freeze, slow motion 사용. • 코치와 안무가, 김연아의 대화 장면에서는 롱 샷과 미디엄 클로즈업. • 음향은 경기 장면 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행자에 대해 미디엄 롱 샷, 미디엄 클로즈업, 롱 샷, 팔로우 샷, 안정적인 카메라 움직임. • 아사다 마오의 동작에 대해서만 freeze, slow motion 사용. • 코치와 아사다 마오의 대화는 롱 샷, 미디엄 클로즈업. • 코치와 아사다 마오의 표정을 잡기 위해 빅 클로즈업 사용. • 경기 장면 이외에도 스토리의 국면이 바뀔 때마다 음향이 사용됨.

분석 결과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우선 언술표현 방식에서는 취재자가 인터뷰하는 내용을 시청자가 제 3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도록 하고 있으며,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을 통해 시청자가 이야기를 전해 듣는 상황이 공통적으로 연출되고 있다. 하지만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진행자가 없기 때문에 시청자는 오직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전달하는 객관적인 사실을 전달받는 듯한 인상을 받는다. 반면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경우 보이스 오버 내레이션이 객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사실을 서술하지만, 스튜디오의 진행자가 이야기 중간에 끼어들어 내용을 정리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라는 주관적 의견을 전달하므로 제작자의 의도를 전달받고 있음을 알게 해준다.

또한 공통적으로 모든 등장인물은 취재자의 질문에 대해 답하는 모습이 방송되었는데, 다만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경우는 아사다 마오가 취재자의 화두(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서 시청자에게 발화하는 장면이 있어 시청자와의 거리감을 좁힌 특징이 있다.

김연아와 코치 또 아사다 마오와 코치의 대화 장면도 차이점이 보였다.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코치와 김연아가 편안한 관계로 대화하고 발화하는 모습인 반면, 「攻める氣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코치와 아사다 마오가 함께 식사하거나 경기 후 포옹하는 모습도 보이지만 훈련과 경기에 대해서는 코치와 아사다 마오가 진지하게 대화하는 모습이 자주 등장하였다. 이는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가 김연아의 개인적이고 외적인 모습에 포커스를 맞췄다면 「攻める氣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아사다 마오와 코치의 관계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으로 보인다.

영상표현방식의 분석 결과, 등장인물 인터뷰와 주인공과 등장인물 간의 대화하는 모습에서 비슷한 촬영방법이 나타난 것 외에는 두 프로그램은 많은 차이점을 보였다.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는 김연아의 기술적 우수함을 아사다 마오와 비교하기 위해서 두 선수 모두에게 freeze와 slow motion을 사용했다. 이것은 시청자에게 두 선수의 기량 차이를 매우 객관적으로 분석한다는 느낌을 준다. 그리고 음향은 최대한 절제하면서 현장의 소음이나 현장의 음악을 내보내 논픽션의 느낌을 살리려 했다. 다만 두 선수의 비교장면에서는 음향을 통해 잘못된 점프 기술을 구사하는 아사다 마오와 정확한 점프 기술을 구사하는 김연아를 뚜렷이 구별할 수 있게 했다.

반면 「攻める氣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는 진행자를 다양한 각도로 촬영하면서 진행자의 발화내용을 집중하게 했다. 이는 정신력이 헤이해졌다는 오명을 받은 아사다 마오를 촬영한 제작자가 본 아사다 마오를 좀 더 호소력 있게 시청자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로 보인다. 또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오직 아사다 마오에게만 freeze와 slow motion을 사용하여 그의 기술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려 했다. 코치와 아사다 마오는 관찰자적 입장에서 빅 클로즈업이 자주 사용되었는데, 이는 그들의 미묘한 감정까지도 시청자에게 보여주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또한 60분 동안 거의 모든 장면에서 경기 현장 음악을 비롯한 음향을 사용하여 화려한 인상을 주었다.

이상의 담화 분석을 보면 두 프로그램은 취제한 대상에 대한 정보를 보이스 오브 내레이션이나 등장인물의 인터뷰, 안정적인 카메라 샷과 앵글, 움직임을 통해 객관적으로 전달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에서는 내레이션의 주관적 단어 사용에서, 「攻める氣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에서는 진행자의 주관적 발화 내용에서 두 다큐멘터리 모두 제작자의 시

각에서 재구성된 이야기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특히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의 경우는 전문가들이 김연아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장면에 자막을 처리하고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기술 점수표를 보여줌으로써 김연아의 우수성의 정확한 근거 자료가 제시되는 느낌을 받는다. 또한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의 기술을 계속 비교하여 두 라이벌 관계가 긴장감 있게 묘사되기 때문에 김연아의 우수함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었다. 결국 모든 담화는 김연아의 기술적 우수성을 보여주는 틀로 작용하였다. 반면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의 경우는 주인공이 시청자에게 발화하거나 카메라가 관찰자적 시각에서 주인공을 빅 클로즈업함으로써 아사다 마오의 내면을 드러내려고 했다. 또한 코치와의 관계를 치밀하게 묘사함으로써 두 사람의 갈등과 협력 관계가 강조되었다. 결국 모든 담화는 주인공인 아사다 마오의 심리 상태와 코치와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틀로 작용했다.

3) 신화 분석

(1) KBS 스페셜 「종달새의 비상」

이 다큐멘터리는 시련극복의 인간드라마가 됨으로써 헝그리 정신이라는 신화가 도출된다. 즉 김연아가 처한 환경이 열악했기에 그녀의 승리가 더욱 값져 보인다는 식이다. 그렇기에 여기에 감동한다는 것은 근본적인 환경 개선에 노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개인적 영웅의 탄생을 기대하는데 은연중에 동참함을 뜻한다. 또한 김연아가 우리나라 국가대표라는 위치에 있다는 점과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서사구조를 통해 이 시련극복의 인간 드라마는 애국주의 드라마로 의미영역을 확대하기 쉽다.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남녀 합해 모두 5명의 선수가 선발된 일본과 김연아 단 한명이 선발된 한국이라는 맥락은 ‘일 당 백’의 과시적인 경쟁논리로 이어지고, 이러한 우월감을 바탕으로 한 애국주의는 노력이 환경을 이긴다는 인상을 부여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애국에는 시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논리이기도 하다. 그 논리에 대한 국민의 정서와 반응은 암암리에 ‘주인공이 영웅이 되기 위해서 시련은 더욱 가혹해야한다’는 신화적 인식을 유포한다. 결국 김연아는 초인적 영웅으로서의 스포츠스타이자 국위선양의 인물(애국자)이 되고, 그녀의 열악한 환경은 그녀를 애국적 인물로 연출하는 극적 장치가 된다.

(2) SBS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여기서는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와의 실력 대비라는 서사 구조를 통해 김연아의 시련극복과 승리는 ‘열악한 환경의 극복 → 아사다 마오와의 경쟁에서 적을 극복 → 아사다 마오를 이김으로써 우수한 일본 피겨환경마저 극복’한다는 중층화된 극복의 의미를 갖는다. 특히 김연아는 새로운 국제 판정시스템에 잘 적응하면서 잠재 능력을 개발하는 인물로 그려지는데 이 역시 김연아의 승리는 ‘개인적 노력과 능력 계발에 기인한다 또는 환경적 열악함은 능력으로 극복 가능하다’는 의미를 갖는다. 반면 아사다 마오는 물리적 환경의 우수함에 비해 국제적 판정시스템의 환경변화에는 부적응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결국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그녀의 우승과정에 무엇(환경, 라이벌 등)인가를 누르고 성취하는 ‘극복’코드를 삽입함으로써 김연아의 우승에서 환경적 열악함은 간과되고 선수 개인의 능력(이자 달성한 결과)의 절대적·상대적 우월함에 주목하게 만든다. 또한 김연아의 실력은 해외 호평-객관적 점수로 증명되고 있다. 여기서의 해외 호평은 백인 또는 영어권 인물, 일본인이 전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롭다. 그리고 경기 심사 결과표의 점수는 객관적일 것이라는 전제하에 제시된다. 이에 대한 긍정적 의미의 신뢰는 우리나라에서 세계적 신화의 인물을 창출한 것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로 이어지고 결국 김연아는 애국적 인물, 그의 승리는 국가적 승리라고 신화화된다.

하지만 여기에서는 두 가지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 첫째는 김연아가 열악한 환경을 실력으로만 극복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고 둘째는 열악한 현실이 여전히 존속한다는 사실이다. 김연아는 캐나다로 가서 전속 코치와 안무가를 두고 훈련하면서 그간 부족했던 표현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전략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새로운 국제 판정 시스템에 적응하여 세계적 선수로 도약했다. 즉 김연아는 열악한 현실을 과감히 탈출하였기 때문에 우승을 거뒀는데도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여전히 환경을 거론하며 개인의 실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우리가 세계적 성공을 거둔 김연아의 이야기에 감동하고 있는 동안 이 다큐멘터리는 열악한 빙상 환경은 여전히 그 자리에 그대로 있다는 점과 그 개선점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3) NHK スポーツ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気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이 다큐멘터리가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이야기 구조가 ‘아사다 마오 대 김연

아'라는 라이벌 간의 경쟁구도가 아니라 '타라소와 코치 대 아사다 마오'라는 사제 간의 협력관계에 있다는 점에서 김연아를 아사다 마오의 라이벌로 다루기보다는 아사다 마오의 발전 단계의 한 부분으로 다룬다고 볼 수 있다. 타라소와 코치와 아사다 마오의 관계는 '트리플 악셀 기술의 2회 도전의 허용 → 스텝의 개선 → 표현력 개발'로 한편으로는 이들 간의 '의사소통의 어려움 → 그랑프리 파이널 우승 → 올림픽 준비'라는 협력 관계 발전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진행은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의미를 부여한다. 즉 코치와 선수의 관계 개선과 발전은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절박한 심정을 가진 아사다 마오에 대해 냉정하게 거리를 두고 바라본 코치가 선수의 강한 의지에 공감하고 선수를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 협력을 하게 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협력과 조화의 결과로 아사다 마오는 불완전한 존재에서 완전한 존재가 됨으로써 '협력과 조화'의 가치는 격상된다.

이 다큐멘터리에서 아사다 마오와 카타리나 비트 등의 멘트를 통해서 강조되는 마인드는 '攻める氣持ち(공격·도전하는 마음)', '성취감', '강한 정신력'이다. 그런데 초반부에는 아사다 마오의 트리플 악셀의 실패를 '정신의 약함'에 있다고 보았고, 그것이 코치와의 만남과 관계 진전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강함으로 이어지며 그랑프리 파이널에서 라이벌에게 승리함으로써 이 강한 마인드는 획득된다.

(4) 후지TV 「世界女王密着 365日(세계 여왕 밀착 365일)」

이 다큐멘터리에서는 아사다 마오가 주인공으로서 극복해야 할 대상은 라이벌이 아니다. 또한 자신의 기술적 실수만도 아니다. 강함이라는 이미지로 대변되는 선수 아사다 마오란 존재는 실제 인간 아사다 마오에게 약함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며, 바로 그 약함이 아사다 마오가 극복해야 할 대상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사다 마오는 내면의 약함을 지치지 않는 도전정신과 강한 의지로 이겨내는 동시에 조력자들의 도움을 받는다. 조력자들은 그녀에게 잠재된 강함을 이끌어낼 수 있게 도와준다. 아사다 마오의 조력자로는 새로운 도전이 되는 프로그램을 짜는 타라소와 코치, 그 프로그램을 소화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주는 트레이너, 온전한 연기를 펼칠 수 있는 스케이트화를 만드는 스케이트화 전문가가 등장한다. 이는 선수가 비단 자신의 의지만으로 혹은 누구 한 명만의 조력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즉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합심한 결과 한 명의 재능 있는 선수가 자신의 결함을 줄이고 장점을 거듭 발전시키며 그것이 조화롭게 이루어졌을 때 우승까지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여기에 등장하는 아사다 마오는 완전무결한 존재가 아니다. 선수로서는 천부적인 재능과 강인한 정신력을 지닌 반면 인간적으로는 약한 면모를 지녔다.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훈련을 통해 세계무대에서 활약하는 우수한 선수라고 해도 단점이나 결함이 있으며 그것은 스스로의 노력만이 아니라 주변 환경의 도움을 통해 극복된다는 것이다. 철저히 분업화된 전문가들이 하나의 목표를 향해 협업함으로써 ‘아사다 마오의 가면무도회’는 완성되었고, 이를 통해 선수 아사다 마오는 성장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선수 아사다 마오의 우승은 개인만의 성과가 아니라 Team work의 성과이며 이를 통해 일본의 선수 육성 프로그램이 시스템화 되어있는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5) 한·일 다큐멘터리의 신화 비교

이상의 분석을 통해 각 프로그램의 신화를 정리해 보면, 4개의 다큐멘터리는 한국 다큐멘터리와 일본 다큐멘터리로 구별할 수 있는 요소를 발견할 수 있었다.

<표 3> 신화 분석 비교

	의미화	신화
중달새의 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부적 재능 ● 열악한 환경 ● 시련의 극복 ● 부상투혼 ● 개인의 노력으로 얻은 승리 ● 경쟁자에 대한 승리 ● 애국적 인물 / 국가적 승리 	헝그리 정신 초인적 영웅을 기대 국가의 결함(열악한 환경)을 은폐 개인적 능력 중시 민족주의 승리지상주의 / 결과지상주의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부적 재능 ● 열악한 환경 ● 완벽한 능력 ● 경쟁자에 대한 승리 ● 해외 호평 ● 점수화된(객관적으로 검증된) 실력 ● 부상 투혼 ● 애국적 인물 / 국가적 승리 	승리지상주의 / 결과지상주의
攻める氣持ちを忘れない(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신의 약함 ● 트리플 악셀(강력한 기술) ●攻める氣持ち(도전 정신) ● 코치와의 유대감 ● 강한 정신력 ● 한계 극복 / 우승(성취감) ● 자신에 대한 승리 ● 세계적 선수 	자신과 싸워 이긴 영웅 협력과 조화 시스템 중시 민족주의

世界女王密着 365日 (세계 여왕 밀착 365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부적 재능 ● 세계무대 / 세계 여왕 ● 평범한 소녀(완전무결하지 않음) ● 도전 정신 / 강한 정신력 ● 코치 및 스텝들과의 협업 ● 나약함의 극복 / 우승 ● 자신의 만족감을 위한 노력 	
--------------------------------------	--	--

한국의 다큐멘터리에서는 주인공인 김연아가 열악한 환경을 개인적인 노력과 능력으로 극복하고 더 나아가 환경적으로 혜택 받은 라이벌 아사다 마오를 이김으로써 전반적인 국내 피겨환경의 개선보다는 영웅의 탄생과 승리구도에 주목하게 한다. 한국에서의 우수한 선수의 성공이란 철저하게 개인의 공과로 인정되고, 국가가 해결해야 할 열악한 환경은 개인적으로 극복(우승) 또는 회피(해외 이동)함으로써 은폐·축소된다. 이는 사회적 안전장치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시스템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투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인으로 하여금 사회란 약육강식의 승리구도에 있으며 각개약진으로 살아가는 것이 옳다는 이데올로기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김연아의 우수한 실력을 외국인의 입이나 대회 결과를 통해 증명하고자 하는 것은 김연아의 가치를 우리 자신이 아닌 외부의 인정에서 찾으려는 경향을 알 수 있게 한다. 나아가 외국을 이긴 한국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김연아의 승리는 국가적인 것이라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하여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역할을 한다.

반면 일본의 다큐멘터리는 아사다 마오가 조력자와의 관계와 성과를 통해 ‘협력과 조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공통점이 있다. 즉 우수한 선수의 성공이란 개인적 노력으로 주어진 성과가 아니라 팀워크의 성과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시스템(더 나아가 국가)’의 중요성과 그 속에서의 ‘협력과 조화’라는 이데올로기를 내포한다. 일본에서의 개인은 외부의 적에 대해서는 훌륭한 시스템으로 인해 혹은 시스템 속의 개인이기 때문에 고려대상이 아니다. 때문에 「攻める氣持ち(도전하는 마음)」으로 대변되는 공격성은 외부의 적이 아닌 자기 자신과의 싸움으로 전이된다고도 할 수 있다.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攻める氣持ち(도전하는 마음)」은 외부의 기준(해외 호평, 대회 우승)에 연연하지 않는 자신감의 발로라고도 볼 수 있다. 그리고 다큐멘터리에는 ‘일본’이라는 단어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아사다 마오에 대해서 ‘세계여왕’, ‘세계무대’, ‘세계적 선수’라는 용어를 통해 아사다 마오의 성과를 국가적인 것으로 승화시킴으로써 민족적 자긍심을 고취시키는 이데올로기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는 스포츠영웅인 김연아와 아사다 마오에 관한 한·일 양국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와 의미화 방식, 그 시사 하는 바를 통해 두 나라의 미디어가 어떤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한국의 다큐멘터리는 KBS의 「종달새의 비상」과 SBS의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 2편을, 일본의 다큐멘터리는 NHK의 스포츠大陸(스포츠대륙) 「攻める氣持を忘れない (도전하는 마음을 잊지 않는다)」와 후지TV의 「世界女王密着 365日(세계 여왕 밀착 365일)」2편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다큐멘터리에서 스포츠 선수를 신화화하고 영웅화하지만 그 서사구조와 의미화 방식 및 내포된 신화에는 차이점이 있다는 점이었다.

우선 한국의 다큐멘터리 KBS의 「종달새의 비상」과 SBS의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의 서사구조는 1) 각개약진의 성공 과정, 2) 승자독식·약육강식의 승리 논리, 3) 라이벌(일본)의 강조라는 3가지 큰 맥락에서 서술된다. 특별히 한일전에 대해서는 민족주의적 색채를 벗어나지 못하고 지나친 애국주의와 배타주의를 표출하고 있다거나²⁹⁾ 소수 엘리트 위주의 보도 경향을 지니고 있다³⁰⁾는 한국의 스포츠 저널리즘의 특징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 하지만 이들 다큐멘터리는 기존의 스포츠 저널리즘과 달리 휴먼 다큐멘터리의 ‘개인화’, ‘사사화’ 경향을 드러내면서 각개약진의 성공 과정이 강조된다. KBS의 「종달새의 비상」의 경우는 선수의 성공과정에는 여러 사람의 협력 과정이 아닌 부모의 노력이 부각된다. 선수의 부모는 선수의 자질을 찾아서 도와주는 조력자의 능력을 넘어선다. 즉 한 선수의 성공의 90%는 부모가 만든 것이고 부모가 자식을 정성껏 발굴하고 키워야 한다는 내용을 강조한다. SBS의 「소녀, 세계를 매혹하다. 김연아」에 등장하는 외국인 코치도 다큐멘터리 상에서의 멘트는 선수가 재능을 발휘하는 것을 도와줄 뿐이라고 하는데도 전체적인 맥락에서는 코치의 치밀한 전략에 따라 우승하는 -우승하도록 키워지는- 선수라는 이야기가 전개된다. 그래서인지 두 프로그램 모두 선수 스스로가 스포츠를 통해서 자신을 찾는 고뇌의 과정은 드러나지 않으며 그 선수의 성공은 자신의 만족감과

29) 임재구, 「한국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사회·철학적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 『움직임의 철학 : 한국체육 철학회지』 제14권 제2호, 2006, pp.19~34

30) 신규리·원형중, 「우리나라 종합일간지의 스포츠 스타보도경향 분석」, 『한국여성체육학회지』 제18권 제3호, 2004, pp.129~141

별개로 우승과 점수로 객관화되고 인정받는다.

이상에서 보듯이 협력을 통한 승리의 과정이 부재한 한국의 환경은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엄청난 에너지를 개인과 그 가족이 책임져야만 선수로서 활약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선수의 부상이나 선수층 박약, 미약한 환경은 고질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개인의 능력으로 극복할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한 사람이 우수한 선수가 되기까지 철저히 개인적 노력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으로서의 스포츠 시스템은 미비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분석한 스포츠 다큐멘터리 2편 모두 열악한 환경 개선의 당위성에 대해서는 함구하거나 축소하고 있다. 즉 한국의 스포츠 다큐멘터리는 시스템의 미비함을 스스로 극복하는 개인을 기대하게 만들고 그것이 진정한 영웅의 우승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국가적 결함을 은폐하는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³¹⁾.

반면 일본의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는 1) 자신의 성장, 2) 조력가의 역할, 3) 환경적 뒷받침이라는 맥락에서 전개된다. 우선 공통적으로 주인공 아사다 마오는 개인적 목표를 이루는 과정에서 성공하고 성장한다. 즉 내적 자아를 찾는 과정인 개인의 성장에 초점이 맞춰지며 그것이 목표한대로 잘 되었을 때 성공도 찾아온다는 이야기이다. 일본 다큐멘터리에서의 성공 잣대가 자기 스스로의 평가와 만족이라는 점은 김연아의 성공 잣대를 해외의 평가나 심판 판정 점수라는 ‘객관화된 거울’에서 찾으려 했던 우리나라의 다큐멘터리와 구별된다. 두 번째로는 아사다 마오의 코치는 조력가로서의 역할에 그치고 있다는 점이다. 코치는 아사다 마오의 재능을 돋보이게 도와주는 역할로만 그려진다—설령 코치가 아사다 마오를 제조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수한 선수에게는 환경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사다 마오가 자신의 결함을 보다 쉽게 극복하고 세계적인 선수가 되는 데에는 자신만의 노력과 실력이 아니라 연기훈련·체력훈련·장비·훈련시설의 철저한 분업화와 협력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상의 모든 조건(자신의 성장과 조력가의 역할 및 환경적 조건)이 조화를 잘 이루었을 때 성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재능 있는 선수를 더욱 완벽하게 만드는 것은 협력이라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일본의 다큐멘터리에서 훈련 시설의 문제는 거론되지 않는다. 그것은

31) 이 점은 한국 휴먼 다큐멘터리가 개인적 차원에서 사회적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메시지가 드러난다는 이종수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결과가 나왔다.

선수의 몫이 아니며 당연히 선수를 키우는 토양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결되어야 할 전제조건으로 이미 다 갖춰놓았다. 따라서 어디까지나 아사다 마오는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신만의 도전을 위해 집중할 수 있다. 그리고 결과를 팬들에게만 전적으로 평가받지 않고 자신이 스스로 평가하는 자신감을 보인다. 하지만 그러한 자신감은 시스템에 충실했을 때, 주위와의 협력과 조화의 결과가 최상이었을 때를 가정한다. 만약 아사다 마오가 주변과 불협화음을 일으키는 존재였을 때에도 자신을 평가하는 이러한 자신감을 일본인들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이다.

이러한 두 나라의 다큐멘터리의 서사구조와 신화를 분석했을 때 각각의 다큐멘터리는 한국과 일본의 문화적·이데올로기적 시각을 반영하고 있었고, 우리는 두 나라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와 가치관의 차이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른 문화권이나 국가의 다큐멘터리의 비교연구가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최대한 치밀한 연구를 하고자 노력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각각 2편의 프로그램만을 분석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다큐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스포츠신화에 대한 일면만을 판단가능하다는 한계점을 지니고 있다. 또한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 다큐멘터리의 텍스트만을 분석했기 때문에 두 나라의 저널리스트의 시각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하지 못한 한계도 있다. 하지만 분석한 서사구조와 신화를 통해 배후에 깔린 이데올로기와 성향파악 및 제작 경향을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이번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서는 여러 나라의 다큐멘터리를 비교 연구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스포츠신화의 경향을 보다 비판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호석(1998). 스포츠 스타, 현대의 영웅. 이동연 외. *스포츠, 어떻게 읽을 것인가*. 삼인.
- 김훈순(2004). 텔레비전 서사 연구의 메타분석. *방송연구*, 겨울호; 167~197.
- 나미수·전오열(2006). TV시사다큐멘터리의 서사 비교연구: '트렌스젠더'주제 <추적60분> <그것이 알고 싶다>를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6(4); 89~132.
- 신규리·원형중(2004). 우리나라 종합일간지의 스포츠 스타보도경향 분석. *한국여*

- 성체육학회지, 18(3); 129~141.
- 신성아(2008). 신자유주의 국가재편 과정에서 스포츠 스타는 어떻게 소비되는가? *문화과학, 문화분석*, 통권 56호; 310~340.
- 윤여광·이인희(2005). 스포츠영웅의 미디어프레임과 수용 특성 연구. *언론과학연구*, 5(3); 373~410.
- 원용진(1996). *대중 문화의 패러다임*. 한나래.
- 임재구(2006). 한국 스포츠 내셔널리즘의 사회·철학적 이해에 관한 질적 연구. *움직임의 철학: 한국체육철학회지*, 14(2); 19~34.
- 심 훈(2005). '쓰나미'에 대한 한미 양국간의 이야기 구조 서사 분석: MBC의 <시사매거진 2580>과 CBS의 <60 minutes>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보*, 49(6); 286~259.
- 최경순(1999). *매스 미디어에 나타난 한국사회의 성공신화분석: MBC-TV 「다큐멘터리 성공 시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용환(2002). *서사 이론과 그 쟁점들*. 문예출판사.
- 阿部潔(2008). *スポーツの魅惑とメディアの誘惑*. 世界思想社.
- 舛本直文(1997). 『東京オリンピック』の映像解釋: 「芸術か記録か」論争からみたオリンピックズム, *体育學研究*, 42; 153~166.
- 橋本純一(1986). 미디어·스포츠に関する研究Ⅱ—記号論的研究視角とその適用—, *筑波大學体育科學系紀要*, 9; 43~52.
- _____ (2002). 미디어·스포츠ヒーロー의 誕生と変容, *現代メディアスポーツ論*. 世界思想社.
- 橋本純一(編)(2002). *現代メディアスポーツ論*. 世界思想社.
- 平川澄子(2002). 스포츠, 젠더, 미디어·이미지 —스포츠CF에描かれるジェンダー—. *現代メディアスポーツ論*. 世界思想社.
- Barthes, R.(1957). *Mythologies*. 이화여자대학교 기호학연구소 옮김. *현대의 신화*. 2002, 동문선.
- Curran, James, Michael Gurevitch & Janet Woollacott(1992). The study of the media: theoretical approaches. *Culture, Society and the Media*. London, Methuen.

Kozloff, S. R.(1987). 서사이론과 텔레비전, in R. Allen(ed.), *Channels of discourse: Television and Contemporary Criticism*(pp. 67-108), 김훈순 역(1992). *텔레비전과 현대비평*. 나남.

신문 검색

김연아 ‘걸어 다니는 광고’ 최근 1년 TV CF 1위. *헤럴드경제*, 2009년 5월 21일

Abstract

Comparative study of narrative structure about Korean and Japanese sports hero documentary programs

This essay first analyzes the narrative structure of Korean and Japanese documentary programs spotlighting two current female figure skaters Yuna Kim and Mao Asada, respectively. It then discusses the meaning of such methodology and attempts to understand the implications in terms of sport media. For this purpose, I have chosen to analyze four programs: a KBS Special, *An Extraordinary Skylark*; a SBS program, "A Girl Who Enchanted the World"; a NHK Sports World program, "Never Yielding to the Challenge"; and a Fuji TV program, "Up Close with the World's Ice Queen: Her 365 Days" I conclude that both Korean and Japanese documentaries construct the narrative around creating a main character who gives it her all through which she becomes a hero. The primary difference between the Korean and Japanese programs is that the Korean documentary programs use the method of directly comparing the two athletes--Yuna Kim with Mao Asada--as well as the conditions under which these two trained, especially the disadvantages Yuna Kim had to overcome, in order to show the ultimate superiority of Yuna Kim over her rival Mao Asada.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documentaries do not refer to Asada's rival but, constructs the narrative by focusing on Mao Asada herself in order to demonstrate her superior qualities. Furthermore, the Japanese programs stress the point that Asada's progress was achieved through cooperation with her coaches thereby emphasizing the value of "cooperation and harmony." I conclude that Korean and Japanese media employ differing narrative techniques in constructing their sports heroes. If in Korean documentaries the narrative constructs a "hero based on individual's ability," then in the case of Japanese documentaries, a hero's victory is achieved when "cooperation and harmony within a collective body is reached"

Key word: sports documentary, Yuna Kim, narrative construct, myth analysis, ideology